

# '조특법' 국회 통과... 광주은행 매각 내달 본계약

<본회의>

## 내달 2일 KJB금융지주 창립...10월 매각작업 마무리

우리금융지주 산하 광주·경남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어왔던 광주은행 매각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산하 금융기관들의 분할·합병을 '적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금융 산하 광주·경남은행 분리매각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 6384억원과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 6550억원대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격분할'로 간주하자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요지다. 국회 기재위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조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

### ■광주은행 민영화 일정

5월1일	분할기일(인적분할)
5월2일	KJB 금융지주 창립총회
5월22일	KJB 금융지주 재상장(예정)
8월1일	KJB 금융지주와 광주은행 합병(예정)
8월14일	광주은행 재상장(예정)

과하면서 광주은행의 분할 및 재상장 작업이 다음달 중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광주은행은 다음달 1일 인적분할을 거쳐 이튿날인 2일 KJB금융지주

창립총회를 열게 된다. 지난해 말 광주은행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JB금융은 최근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마무리했으며, 다음달 중순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유 공사를 상대로 광주은행 매매대금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이어 재상장된 광주은행 주식 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한 뒤 10월 중 매매대금을 최종 납부하면 광주은행 인수작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한편, JB금융은 전북은행과 JB우리캐피탈을 자회사로 거느린 국내

11번째 은행계 금융지주로, 자산은 14조원 규모다.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총 자산규모가 35조원으로 늘어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 중견금융그룹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JB금융은 내다봤다.

JB금융 관계자는 "올해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직원을 100% 고용승계하고 '광주은행'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며 "광주은행 노조와의 약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광주은행 장학금 1억2천만원 전달

### 31개 대학생 60명에

재단법인 광주은행장학회(이사장 김장학)는 29일 '2014 광주은행 장학생'으로 선발된 31개 대학교 60명의 대학생들에게 1억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들 장학생은 지역대학과 자치단체를 비롯한 기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광주은행은 지난 1981년 11월 광주은행장학회를 설립해 올해

를 포함, 33년 동안 지역학생 3576명에게 총 26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김장학 이사장은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는 동시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 산학연수생 및 인턴제도 실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

## 은행예금 금리 연 2.6%

### 사상 최저치 기록

은행의 저축성 수신상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4년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정기예·적금 등에 은행의 저축성수신상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평균 연 2.60%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최저치다.

저축성 수신의 금리는 지난해 11월 2.62%까지 떨어졌다가 12월 2.67%로 반등하고서 올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뺀 순수 저축성 예금 금리는 2.58%로 더 낮다.

이주영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최근 자금이 풍부해 은행들이 정기예금 등에 우대 금리를 얹어주는 경우가 줄었다"고 예금 금리의 하락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3.69%)도 전월보다 0.02%포인트 떨어져 2001년 통계 편제 이래 최저인 지난달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다만,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63%에서 5.77%로 0.14%포인트 상승하고 집담대출 금리도 3.69%에서 3.77%로 0.08%포인트 올라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4.05%→4.09%)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4.57%로 2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가계·기업·공공부문 전체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01%포인트 오른 4.46%였다.

은행의 예대마진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와 총대출금리의 차는 2.53%포인트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줄었다.

/연합뉴스



###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설명회

29일 광주시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합동 채용설명회에 취업을 앞둔 대학생 1500여명이 몰려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전남 신설법인 전년 동기비 10% 이상 늘어

### 전국 2만개 넘어...2003년 이후 분기 기준 최다

청년층 중심의 창업 열기가 고조되면서 올 1분기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이 부문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분기 기준 최다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청이 29일 내놓은 '2014년 1분기 및 3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1분기 신설법인 수는 695개로 지난해 같은 분기(622개)보다 11.7%(73개)나 늘었다. 지난해 4분기(643개)와 비교해도 8.1%(52

개)나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644개로 전년 동기(581개)보다 10.8%(63개) 늘었으며 전분기(518개)와 비교하면 24.3%(126개)나 증가했다.

광주지역 신설법인인은 지난해 7월 257개로 정점을 찍으며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매달 200개 이상씩 생겨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분기 2만76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8984개)보다 9.4%(1777개) 증가하며 분기 실적으로는 처음으로 신설 법인 수 2만개를 돌파했다.

업종별로 나눠보면 제조업 23.2%(4807개), 도·소매업 20.7%(4303개), 건설업 11.4%(2360개), 정보서비스업 8.2%(1703개)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제조업(14.9% ↑), 건설업(13.7% ↑), 서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64.77 (-4.49)	556.97 (+0.01)	2.88% (0.00)	1036.40원 (-4.40)

## 제동성능 높이고 마모수명 6만km 보증

### 금호타이어 프리미엄 타이어 '솔루스 TA31' 출시

금호타이어가 소음은 줄이고 주행 성능은 강화시킨 프리미엄 타이어 '솔루스(SOLUS) TA31'을 출시했다.

신제품 타이어는 사계절용 프리미엄 타이어로, 부드러운 승차감이 특징인 기존 솔루스 시리즈에 저소음과 동급대비 마모성능, 주행성능을 강화시켰다. 14~18인치까지 총 39개의 다양한 규격이 제공되며 대형과 중형, 소형 차급별 특성에 맞게 최적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했다.

특히 타이어 표면의 강성을 강화해 마른 노면에서의 핸들링과 제동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자체 테스트 결과 경쟁사 대비 제동거리가 2m 가량 단축시켜 제동성능도 높였다. 금호타이어가 실시하는 마모수명제에 따라 전 규격에 대해 6만km 마모수명을 보증한다.

솔루스 TA31은 국내 출시에 앞서



미국 크라이슬러의 중형세단 '올 뉴 200'에 신차용 타이어(OE)로 공급 중이다.

박동주 PC개발담당 상무는 "신제품은 기존제품 대비 모든 면에서 최대 10% 가량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고객의 차량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프리미엄 타이어가 될 것"이라며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규격, 대중성을 무기로 내수 및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은행, 대출 거절 이유 자세히 알려준다

### 애매한 거부 관행 개선

올해 상반기 내에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면 이유를 자세히 알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 대출 신청서를 개정해 거부 사유 등에 대해 서면이나 말로 선택해 충분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모든 은행에서 대출 거부 사유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나 대부분 영업점에서는 대출 담당자의 간략한

설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연체 사실이 있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또는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어렵습니다" 등을 알려주는 정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 거절 고지 내용에 연체율,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사 등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이 대출 거절 사유별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신용 점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주는 대고객 컨설팅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두암신탁 한시 특판

정기에탁금

1년 6개월 **3.1%**

1년 **2.95%**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두 암 신탁**

본점 :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침단지점 :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

www.yh-bus.com

#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